

후두, 기관, 기관지의 결핵 및 후유증

김예원 / 김예원내과의원장

후두 및 인접기관의 결핵

이 경우는 과거에 중증의 폐결핵에서 가끔 보는 합병증으로 폐결핵의 나쁜 예후를 암시하는 하나의 조짐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근래에는 폐결핵이 조기에 발견 진단되고 치료되기 때문에 발생빈도가 드물고 후두 결핵 자체도 결핵약에 잘 반응하므로 과거처럼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다. 후두 및 그 주위에 결핵이 생기는 기전은 결핵균이 포함된 객담이 배출도중 후두 부위에 걸려서 후두 점막에 결핵균이 이식되어 감염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초기 증상으로는 목소리가 쉬게 되면서 인두부위에 자극을 느끼게 되고 기침이 나타난다. 침범의 정도가 심하여지면 말을 할 때도 통증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며 음식물을 삼킬때도 통증으로 심한 곤란을 받게된다.

진단을 위하여 후두경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 때의 소견은 후두부위가 빨갱게 부어 있으면서 성대와 그 주변에 궤양이 보이기도 한다. 폐결핵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후두결핵으로 쉽게 진단을 내릴 수도 있지만 때론 후두암,

다른 종양들과 감별을 위해 조직검사가 필요하다. 후두의 인접기관인 인두, 편도선, 혀, 구강의 점막에 결핵이 올 수도 있으나 상당히 진행된 중증의 폐결핵이 아니면 보기 힘들며 이들 기관의 결핵 역시 항결핵제로 잘 치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관과 기관지의 결핵

종래에는 기관(氣管)이나 기관지의 결핵은 진단이 쉽지 않았고 따라서 별로 그 중요성이 인식되지 못하였으나 임상에서 기관지 내시경 검사법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면서 관심을 끌게 되었다. 기관지의 결핵 역시 폐결핵의 특이한 형태로서 일종의 합병증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기관지 결핵은 전염성이 매우 크고 진단이 쉽지 않아 흔히 천식 등 다른 질환으로 오인되는 반면에 조기에 진단하여 적절히 치료를 하지 않으면 기도가 좁아지고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되므로 문제가 된다. 결핵이 기관지를 침범하는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린이의 초감염 결핵과 성인의 재감염 결핵에서의 감염기전이

다르다. 어린이의 초감염 결핵에서는 기관지 주변의 임파선이 커지면서 기관지에 압력을 가해 기관지의 결핵을 초래하고 때로는 기관지벽의 괴사나 궤양을 일으킨 후 임파절에 있던 결핵균이 기관지에 이식되게 된다. 또한 초감염 결핵이 특히 폐하엽을 침범하면서 동시에 기관지에도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성인에서는 기관지의 말초 부위에 결핵이 있으면서 다량의 결핵균을 포함하는 객담이 반복해서 기관지 점막과 접촉하여 기관지에 결핵균이 이식되게 된다. 기관지에 결핵균이 이식되면 기관지 점막층에 결핵종이 형성되고 때로는 기관지벽의 궤양과 괴사를 일으켜 기관지의 협착에 이르게 되고 이 좁아진 부위의 뒤쪽에서는 기관지 폐색에 의한 폐렴 및 기관지확장증이 초래될 수 있다. 기관지의 침범 부위가 넓으면 치유가 되어도 반흔에 의해 기관지의 협착이 후유증으로 남는다. 증상을 보면 폐결핵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증상에 기관지 결핵의 특징적인 소견이 더해진다. 가장 흔한 증상은 자극적이고 경련성의 기침으로 보



통 백일해 때의 기침처럼 킁킁거리린다. 원인이 확실치 않으면서 오래 기침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관지 결핵을 의심해보아야 될 것이다. 질병이 진행하여 기도가 좁아지거나 기관지 분비물의 배출이 방해받게 되면 씨근거리는, 또는 썩썩거리는 숨소리가 지속적으로 되면서 청진을 하여보면 청명음이 어느 국소에서 계속하여 들리게 된다. 이런 경우 기관지 천식으로 잘못 진단되는 수가 많다. 큰 기관지의 궤양과 협착으로 공기의 유통이 막히면 무기폐 현상이 일어나면서 호흡곤란이 심하게 올 수도 있다. 특히 기관이 침범된 경우에는 급성 호흡부전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 기관지 내시경은 기관지 결핵을 진단하는 데는 필수적인 검사로 임상적으로 기관지 결핵의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실시하도록 하여야 된다. 폐실질의 결핵 소견이 확실치 않은데도 객담에 결핵균이 계속 검출되면 기관지 결핵을 의심할 수 있다. 기관지 결핵의 치료는 폐결핵에 준하며 단기요법을 시도할 수도 있다. 기관지 내강의 협착으로 호흡곤란이 오는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신적 스테로이드 요법, 풍선 카테타를 이용한 기관지 확장술 및 수술요법을 들 수 있다. 폐기능에 제한을 주는 반흔형의 협착이 국소적으로 있는 경우에 이를 수술로 제거할 수도 있다. 대개 협착부위를 제거하는 기관지를 문합하는 방법이 널리 이용된다. 卍

사랑으로 낳은아기
비시지로 결핵예방